

## 팔에 생기기 쉬운 몇 가지 이상

팔은 우리 몸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손으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할 때, 손의 지탱 부분인 팔의 중요성은 큰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등으로 인해 팔이 부러진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팔의 골절 현상이 빈번하다 보니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팔에 생기기 쉬운 이상과 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은 전완부와 상완부로 구분됩니다. 팔이 속해 있는 상완골은 팔이나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과, 손과 전완부로 가는 혈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상완골이 골절되면서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될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진단은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동반 손상의 유무를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도수 정복이 가능하다면 견수상 석고 붕대 고정이나 장상지 석고 부목, 현수 석고 붕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복의 유지가 힘들고 환자의 자세가 매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정복의 유지가 힘들고, 혈관이나 신경의 동반 손상이 있을 경우 수술적 치료도 합니다.

###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을 경우

가령 롤러블레이드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을 경우 전완부 골절을 의심합니다. 전완부에는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 전완골은 척골이나 요골 단독으로 부러지기도 하고, 동시에 부러지기도 하며, 골절과 탈구가 함께 일어나기도 합니다. 소아는 도수 정복과 석고 고정으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성인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전 장애나 부정 유합으로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므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전완골의 골절은 성인보다 소아에서 잘 발생하고, 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프거나 관절이 불편하면, 필요에 따라서 사면 촬영, 손목 관절과 팔꿈치 관절의 촬영을 하여 손상 골절이나 탈구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골절 부위는 전위되기 쉬워서 정기적인 방사선 검진이 필요합니다. 보통 수상 후



## 김 주 성 원장


現 대구현대병원 병원장

**약력** 한림대학교 정형외과 외래부교수,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초빙교수, 대구경북병원회 재무이사, 대한수부외과학회 평의원, 대구경북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 학술이사, 아시아태평양 수부외과학회 부회장, 세계수부외과학회, 국제외상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척추외과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골절학회 정회원, 영진전문대학 겸임교수, 대한병원협회 사업이사, 전국통신기자협회 이사장, (주)텔레케어코리아 대표이사, (주)이호스피탈코리아 대표이사, (주)엠에스엔티 대표이사

부정 유합, 불유합, 회전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수상 당시 신경이나 혈관 손상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 확인하여 응급 수술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이 부러져서 전위되는 등 심한 경우는 도수 정복이나 석고 고정을 하더라도 되도록 입원을 하여 면밀히 관찰 후, 수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원 치료를 하더라도 유합이 될 때까지 자주 정기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팔꿈치가 삐뚤어져 있을 경우

우리가 팔을 완전히 폈을 경우 팔에서 손 쪽으로 뻗은 각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데, 그 각은 물건을 운반할 때 이루는 각이라 하여 '운반각'이라 불립니다. 어릴 때는 운반각이 큰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 되면서 줄어들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큽니다. 그러나 어릴 때 주관절 부위에 골절이 있을 경우 10~25%정도 후유증이 남는데, 그중 심한 것은 성장판의 부분 조기 유합이나 성장 정지로 팔의 변형이 일어나 팔이 삐뚤어지는 경우입니다. 주외반은 팔이 밖으로 휘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 비교적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척골 신경이 늘어나게 되고, 심하면 자연성 척골 신경의 마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증세는 새끼손가락 쪽의 감각이 이상해지고 저리며, 진행된다면 감각 마비와 수부의 근육 마비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부정 유합이 원인이면 절골술을 시행하거나 척골 신경의 전방 이완술을 시행합니다.

정상인의 팔은 주외반 되어 있지만 주내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내반은 팔을 폈을 때 팔이 몸의 안쪽으로 휘 경우를 말하는데, 미용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주내반이나 주외반일 때도 필요시 절골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소아에서 보통 주관절 부위의 골절시 부정 유합이 후유증으로 남은 경우 각각의 팔은 주외반의 정도가 정상 범위인데, 반대 측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양쪽을 모두 촬영하여 실제의 골격을 확인하고 성장이 끝날 때까지 관찰하여 자연 교정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이 다 되기 전에 위에서 말한 신경 증세 등이 발생하거나 휘 정도가 심한 경우엔 신경전술이나 절골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현대병원 053-764-2000~9, <http://hyundae.e-hospitalkorea.co.kr>>